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325장 다같이

1.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삼시다
2. 이 세상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삼시다
3. 이 세상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삼시다
4. 주께서 심판 하실 때 잘했다 칭찬 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삼시다

(후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안에 살면서 탄길로 가지 맙시다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5장 14-19절 인도자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6.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설 교 “지금 당신은 무엇입니까?”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1.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7월 되게 하옵소서.
2. 꿈의 정원과 청년부에게 은혜로운 여름을 주옵소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당신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14-17

신광섭 목사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기억되는 오늘을 교회에서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간 죽음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에서조차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예수님만의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 일을 통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매주 기념하고 기억하고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늘 묵상해야 합니다. 저 위에 있는 십자가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심미적 효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잔인하고 잔혹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의 죽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과 동일시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활도 마찬가지로 나의 부활과 동일시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입니까? 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 있게 된다면, 더 이상 지나가 버린 옛 시대에 속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속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우리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활한 존재가 아닙니다. 더불어 죽은 존재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 위대한 선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능력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던 능력의 원천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실 때 비로소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야 합니다. 쉽게 말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새 힘을 공급받으시어, 하나님과 원수 된 이 땅과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화목케 하는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